

더 화려하게 돌아온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관광객 발길

85억 들여 기능개선...LED조명·레이저 등 공연 장비 업그레이드 해상W쇼 콜라보 공연 재개...봄·가을 하루 2회, 여름철 3회 운영

목포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춤추는 바다분수가 단장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다. 목포시는 춤추는 바다분수가 시설 개선 사업을 마치고 최근 목포해상W쇼 콜라보 공연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춤추는 바다분수는 지난 2010년 설치한 이후 13년이 경과돼 설비가 노후화되고 공연의 참신성과 고유 콘텐츠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공연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를 개선하게 됐다. 시는 관광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춤추는 바다분수 기능개선사업에 돌입했으며, 최근 준공을 마쳤다. 기능개선은 기존의 낡은 분수 시설물을 철거하고 부력체 내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최신기술을 접목

한 수중펌프와 움직이는 분사노즐의 수량을 증가시켜 분수의 춤사위를 더욱 부드럽고 섬세하게 하도록 진행했다. 고사 분수의 높이를 기존보다 더 증가시키고 LED조명, 레이저, 빔프로젝터, 무빙라이트 등 공연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추가 설치해 웅장함과 화려함을 돋보이게 했다. 옥상에는 컬러레이저를 설치해 해수면을 도화지 삼아 그림이 그려지고, 바다분수 맞은편에 새롭게 선보이는 원형 전광판은 평화광장 어느 위치에서든 지 음악분수의 공연 정보를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목포의 관광지 소개와 시정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춤추는 바다분수는 봄(4월-5월), 가을(9월-11월)에는 화요일·수요일·목요일·일요일 하루 2회(오



목포시가 춤추는 바다 분수 공연을 지난 27일 정상 재개했다.

(목포시 제공)

후 8시·8시 30분)가 운영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하루 3회(오후 8시·8시 30분·9시)가 운영된다. 여름철(6월-8월)에는 공연을 좀 더 늘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3회(오후 8시·8시30분·9

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설기능개선사업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춤추는 바다분수가 다시 재개됨으로써 화려하고 멋진 공연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지역 상인

과 시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눈과 귀가 즐겁고 감동적인 공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5년간 2900억원 투입

5개년 종합계획 심의·확정 7개 분야 49개 사업 추진

영암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5개년 종합계획(이하 영암아이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를 기치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육아환경조성, 교육,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7개 분야 49개 사업이 담겨 있다. 2028년까지 영암군 17개 부서가 2924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사회가 함께 영암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 목표다. 우승희 영암군수의 위촉을 받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영암아이종합계획의 분야·사업별 내용을



지난 30일 열린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에서 우승희(가운데) 영암군수와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공유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논의했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영암아이종합계획은 오는 4

일 왕인문화유적지에서 열리는 'Book적북적! 영암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에 선포된다. /영암=전봉선 기자 jbh@kwangju.co.kr

신안 도초도 간재미축제 수익금 500만원 기탁



지난달 신안 도초도에서 열린 '섬 간재미축제' 간재미 요리경연에서 참가자들이 만든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신안군 제공)

지난달 '신안 섬 간재미축제'를 성공리에 연 도초도 주민들이 수익금 500만원을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권학운)는 지난 달 19-21일 도초면 수국정원 잔디광장에서 연 '섬 간재미축제' 수익금을 신안군 장학재단에 전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5회째 열린 '신안 섬 간재미축제'는 지역 수산물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인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사흘간 열린 축제장에는 굿은 날씨에도 2000명 넘는 방문객이 몰렸다. 도초면 여성단체협의회는 도초면 특산먹거리인 간재미허 무침과 수산물 빵 판매장을 운영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내년 축제를 3월 말 또는 4월 초 도초면 화도항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 블루베리 본격 수확...가운재배로 2개월 빠른 생산

조기재배로 2배 높은 가격 판매

해남군에서 조기재배를 통한 블루베리 수확이 시작됐다. 노지재배 시 6월경 수확을 시작하는 블루베리를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가운재배로 수확시기를 2개월가량 앞당겼다. 블루베리 조기재배는 최근 급격해지고 있는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겹보온커튼과 이중하우스 등을 활용한 가운재배와 에너지 절감 기술을 활용해 가능해졌다. 일반 재배보다 수확시기가 크게 빨라져 1kg 판매가격이 5만~6만원에 거래되던 6월 평균 가격인 3만원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해남 블루베리는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신선 블루베리는 농가 직거래나 해남군 로컬푸드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해남군에서는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을 위해 해남블루베리 연구회를 운영하고, 전문기술 교육 보급과 블루베리 조기출하 시범사업 추진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신선 블루베리는 농가 직거래나 해남군 로컬푸드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해남 블루베리 농가가 다겹보온커튼과 이중하우스 등을 활용한 가운재배로 키운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임주선 해남군블루베리연구회 회장은 "블루베리 시설하우스 재배로 강우로 인한 당도 저하나 열과 피해가 없어 품질도 우수하다"며 "홍수출하기

를 피해 조기 재배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여지면서 농가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의료원 호남 최초 비뇨의학센터 개소

재활요양병동 신설·본관 증축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성장한 목포시의료원이 호남지역 최초로 비뇨 기계 수술전문비뇨의학센터를 개소하는 등 지역공공의료원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목포시의료원은 112억 7300만원 투입 재활요양병동을 신설한 데 이어 90억을 들여 본관 증축과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최근 준공했다. 또 전환형 격리병동 마련을 위해 1180㎡ 면적에 긴급치료 42개 병상을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료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취역했던 주차 공간도 확충해 200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목포시 산하 공기업으로 광역지자체 산하 의료원보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목포시의료원은 최근 시설개선 작업을 마치고, 15개과 299병상을 갖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최상의 공공의료병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제이 많이 발생하는 전립선 등 갑수술 늘어나는 비뇨계 환자들을 선제적인 대비 차원에서 목포시의료원은 7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비뇨의료기계를 들여와 호남지역 최초로 비뇨기계 수술전문비뇨의학센터를 개소



목포시의료원 전경.

하면서 6월까지 예약이 잘 정도로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비뇨기와 의사와 관련 의료인들이 몰려드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퇴근 시간을 늦추고 야간까지 진료와 수술을 할 정도라는 게 의료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뇨기와 안과 과장은 "의료인의 사명을 다해 환자를 치유를 최우선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예약 환자들 때문에 수술환자는 밤늦은 시간에 보고 있는데 환자들이 만족하는 것을 보면 의사로서 안심되고 사명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최형호 목포시의료원 원장은 "소외된 환자 없이 내 가족처럼 돌보고 치유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임무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박희석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군을 찾은 필리핀 실랑시 계절근로자 102명이 인권 보호, 근로 준수사항 교육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필리핀 계절근로자 102명 입국·배치

무안군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필리핀 계절근로자 102명이 지난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1일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 2022년 필리핀 실랑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3년 동안 총 400명의 계절근로자를 공급받았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달 필리핀 실랑시를 찾아 '진선 결연 협약'을 맺고 농수축산·행정·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102명 중 64명은 농가가 재입국을 추천한 근로자이다. 나머지

38명은 농가가 추가로 신청한 근로자이다. 근로자와 함께 실랑시 시의원과 직원 등 5명도 함께 입국해 계절근로자를 격려하고,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이날 송달문화체육관광에서 고용주 농가와 인권 보호, 준수사항 등 교육을 받고 농가로 배치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인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진도군 3~4일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

장애물 달리기·반려견 장기자랑

진도군이 오는 3일부터 이틀간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제10회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진도개의 고향, 진도개테마파크에서 만남...'을 주제로 군민과 관광객이 반려견과 함께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려견 시범과 마술쇼, 버튼식 축포 등의 개막 공연과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명견 진도개의 우수성 불거리 제공을 위해 진도개와 사진 찍기의 행사가 열린다.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는 어질리티(장애물 달리기) 체험, 미로찾기, 10m 달리기, 장기자랑 대회 등과 진도개 독(Dog) 스포츠가 진행된다. 방문객들을 위한 반려견 인식표·열쇠고리 만들기, 진도개 색고 방향제 만들기, 가족 공예품 만들기 등 16가지의 참여·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진도개 홍보관, 테마파크 쉼매장, 어린이 놀이터, 미니 동물농장, 아리랑 식물원 등을 상시 운영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개를 사랑하고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진도를 찾는 많은 방문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